

ASEM유치의 교훈과 국제회의산업의 활성화 모색

김 한 욱
(제주도관광문화국장)

목 차

- I. ASEM 유치와 제주
- II. 국제회의산업의 재개념 및 동향
- III.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구상
- IV. 장기발전 전략의 과제
- V. 제주컨벤션 건립과 국제회의 산업의 활성화
- VI. 국제회의산업이 제주발전에 미치는 영향

I. ASEM유치와 제주

1. 국제회의 산업의 필요성 재인식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함께 컨벤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 되어 가고 있다. 컨벤션의 개최는 질 높은 인적·물적 유통을 촉진하여 국가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련시설을 정비할 계기를 마련하며, 외래방문객 소비기회를 증대시킨다.

즉 개최지역의 세계화를 진전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특히 컨벤션은 자원의존형이 아니라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컨벤션 개최지역의 관련산업을 활성화 하고 신규 관광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컨벤션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전시회, 박람회, 학술세미나, 제반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행사, 외국기업체들의 인센티브 관광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된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수용환경의 정비 및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그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ASEM유치경쟁을 통해 우리는 이같은 세계 컨벤션 흐름을 재확인하고 제주관광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컨벤션산업의 유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컨벤션은 체재일수를 연장하고 관광비수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ASEM유치경쟁 과정에서 제주도는 요인 경호및 공항, 자연경관 등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확인받았으나 컨벤션 시설 부재로 ASEM을 유치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의 및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었으며, 회의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2. 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제주도는 관광객 40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회의전문시설이 없어 국제적인 관광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는 제주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 15%선이 회의목적인 세계 관광의 흐름과 달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0.8%만이 회의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회의목적 관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홍콩·싱가폴·일본·중국 등 비슷한 조건의 인접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컨벤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관광기반시설의 부족 확인

ASEM유치 경쟁은 객관적으로 제주도가 공항및 도로, 통신등 시설에 있어서는 국제적 수준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호텔및 휴양시설 등의 부족은 ASEM 유치경쟁에서 서울에 뒤지는 결정적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개발의 열기(민자유치 포함)가 5년만 앞당겨졌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ASEM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이후 정부는 제주와 경주를 국제회의 산업 육성 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 후속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컨벤션센터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4. 범도민적 역량결집 및 발현

ASEM유치를 위해 농어민, 관광업, 상공업계 등 도내 전부문과 재외도민까지 포함한 제주도민은 타시도를 압도하는 응집력과 단결로 범도민적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은 도민의 공동목표에 대한 범도민적 역량의 결집이며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100만 도민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II. 국제회의 산업에 관한 제개념 및 동향

1. '국제회의'의 기준

가. 국제협회 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

○ UIA발간 국제기구 연감과 국제회의 캘린더에 수록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가 주최하는 국내회의 가운데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의

- ①전체 참가자수가 300명 이상 ②참가자중 외국인이 40%이상
- ③참가국수 5개국 이상 ⑤회의기간이 3일이상

※ 단, 순수 내국인 회의 및 종교적, 교육적, 정치적, 상업적, 스포츠 성격의 회의와 위원회, 전문가 집단 등과 같이 회의 참가자가 엄격히 제한된 정부단위의 회의로서 대규모 범정부간 국제기구 본부가 소재한 뉴욕, 제네바 등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제외함.

나. 세계 국제회의 전문 협회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ICVB)

- 정기적인 회의로서 최소 4개국 이상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참가자가 100명 이상인 회의

다. 아시아 컨벤션 뷰로 협회

(As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AACVB)

- 공인된 단체나 법인이 주최하는 단체회의, 학술심포지움, 기업회의, 전시·박람회, 인센티브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 가운데 전체 참가자 중 외국인이 10%이상이고 방문객이 1박이상을 상업적 숙박시설을 이용해야함.

- 단, 2개 대륙이상에서 참가하는 국제행사, 동일 대륙에서 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행사, 참가자 전원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행사를 개최하는 국외행사로 구분함.

라. 한국관광공사

- 국제기구 본부에서 주최하거나 국내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가운데 참가국 수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수 10명이상, 회의기간이 2일 이상인 회의

2. 국제회의의 종류

가. 회의(Meeting)

모든 종류의 모임을 총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

나. 컨벤션(Convention)

회의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정보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에서 많이 사용되며, 전시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각 기구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연차총회(Annual Meeting)의 의미로 쓰였으나, 요즘에는 총회, 휴회기간중 개최되는 각종 소규모 회의, 위원회 회의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다. 컨퍼런스(Conference)

컨벤션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통상적으로 컨벤션에 비해 회의 진행실태 토론회가 많이 열리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토론 참여기회 많이 주어짐.

또한 컨벤션은 다수의 주제를 다루는 업계의 정기회의에 자주 사용되는 반면, 컨퍼런스는 주로 과학, 기술, 학문분야의 새로운 지식습득 및 특성 문제점 연구를 위한 회의에 사용

라. 콩그레스(Congress)

컨벤션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유럽지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주로 국제규모의 회의를 의미. 컨벤션이나 콩그레스는 본 회의와 사교행사 그리고 관광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며 참가인원은 보통 수천명에 이르기도 함.

마. 포럼(Forum)

제시된 한가지의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하에 청중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로서, 청중이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함.

바. 심포지움(Symposium)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토론회로서, 포럼에

비해 다소의 형식을 갖추며, 청중의 질의 기회는 적게 주어짐.

사.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청중이 모인 가운데 2명 ~ 8명의 연사가 사회자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가적 견해를 발표하는 공개토론회로서, 청중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음

아. 워크숍(Workshop)

컨퍼런스, 컨벤션 또는 기타 회의의 한 부분으로 개최되는 짧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30명 ~ 35명 정도의 인원이 특정 문제나 과제에 관한 새로운 지식, 기술, 아이디어 등을 서로 교환함

자. 클리닉(Clinic)

클리닉은 소 그룹을 위해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모임. 항공예약 담당자를 예로 들면, CRS(컴퓨터 예약 시스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배운다. 워크숍과 클리닉은 여러날 계속되기도 함

차. 전시회(Exhibition)

전시회는 벤더(Vender :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의 전시모임을 말함. 무역·산업·교육분야 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업자들 의 대규모 전시회는 회의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전시회가 컨벤션이나 컨퍼런스의 한 부분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다. 엑스포지션(Exposition)은 주로 유럽에서 전시회를 말할때 사용되는 용어

카. 무역박람회(Trade Show 또는 Trade Fair)

무역박람회(교역전)는 부스를 이용하여 여러 판매자가 자사의 상품을 전시하는 형태의 행사. 전시회와 매우 유사하나 다른점은 컨벤션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행사로 열린다는 점. 여러날 지속되는 대형 박람회에는 참가자수가 최고 50만명을 넘는 경우도 있음.

3. 세계 국제회의산업 동향

【 세계동향 】

- 세계적으로 국제회의의 개최는 지역을 망라하고 최근 수년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10년간 전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4년에 5,795건으로 처음으로 5,000건대를 기록한 후 국제단체 연합(UIA)의 통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아래의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1988년에는 8,000건대를 돌파하였고, 걸프전이 있었던 1991년과 지난해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증가해 왔다.
- 국제관계가 긴밀해지고 국제상호의존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국제회의의 개최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국제회의의 개최 실적 추이

단위: 건, %

연도 구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개최건수	6,742	7,370	8,394	8,207	8,559	8,251	8,703	8,871	9,069	8,802
증 감 률	8.18	9.31	13.89	- 2.22	4.28	- 3.59	5.47	1.93	2.23	- 2.94

주: 개최 지역 미확인 국제회의가 포함된 수치임.

- 미국의 컨벤션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로 주정부 또는 시정부 차원에서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수요 증대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확장하였거나 확장중인 지역이 대부분이다.
- 유럽의 컨벤션센터는 전시 기능 위주의 건본시에서 출발하여 1950년대 이후 관련 시설의 수용을 통한 복합형태의 전문 컨벤션센터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시설의 집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다.

【 아시아지역 동향 】

○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5년 연속 컨벤션 유치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중국, 이스라엘,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95년도 기준 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력등 여러면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다른나라에 뒤떨어져 있는 컨벤션의 유치와 이를 위한 제반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시아지역 주요국가 국제회의 개최 실적 추이

단위: 건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순위	국가명	건 수	순위	건 수	순위	건 수	순위	건 수	순위	건 수
1	일 본	229	1	228	1	240	1	248	1	239
2	싱가포르	140	2	118	2	116	2	112	2	110
3	홍 콩	102	5	91	3	108	4	86	3	102
4	중 국	97	7	73	5	94	5	71	5	78
4	이스라엘	97	4	95	6	83	6	60	7	57
6	인 도	83	3	98	4	105	3	104	4	100
7	한 국	82	8	65	7	68	12	31	11	32
8	태 국	60	6	78	8	61	8	51	6	66
9	필 리 핀	51	10	42	10	45	11	34	9	38
10	인도네시아	47	11	38	11	44	10	39	10	37

【 우리나라 】

- 1995년에 개최된 국제회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184건 가운데 77.72%에 해당하는 143건을 개최하여 여전히 서울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 제주와 경주는 각각 1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서의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 부산, 충청, 경상남·북도는 각각 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국제공항과 수준급의 국제회의장 시설을 갖춘 특급호텔이 계속적으로 개관되고 있는 부산은 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 나고 있어 머지않아 제주 및 경주와 나란히 우리나라 제2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나라 국제회의 지역별 개최 실적 추이

단위: 건, %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개최건수	구성비	개최건수	구성비	개최건수	구성비	개최건수	구성비
서울	107	76.98	117	78.00	103	70.55	143	77.72
부산	0	0.00	0	0.00	3	2.06	5	2.72
경주	1	0.72	5	3.33	3	2.06	10	5.43
경기	12	8.63	6	4.00	13	8.90	5	2.72
강원	2	1.44	0	0.00	4	2.74	0	0.00
충청	9	6.47	12	8.00	14	9.59	5	2.72
전라	3	2.16	0	0.00	0	0.00	1	0.54
경상	2	1.44	4	2.67	3	2.05	5	2.72
제주	3	2.16	6	4.00	3	2.05	10	5.43
계	139	100.00	150	100.00	146	100.00	184	100.00

【 제 주 도 】

- '90년부터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제주도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에는 총 45회에 473개국 24,289명이 참가하였다.
- 이중 국제회의에는 31회에 368개국, 16,075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도내 8개 호텔에서 1회 평균 518명 규모로서, 앞으로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 지난해 개최한 JCI 아시아·태평양 대회는 컨벤션 시설이 없어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개 최 장 소	회 수	참 가 국 수	참 가 인 원
계	45회	473국	24,289명
신 라 호 텔	13	171	2,093
K A L 호 텔	6	37	659
프 린 스 호 텔	5	56	342
임 페 리 얼 호 텔	3	50	300
그 랜 드 호 텔	1	28	12,000
오 린 엔 탈 호 텔	1	11	550
남 서 울 호 텔	1	12	80
하 야 트 리 켄 시	1	3	51
기 타 (청소년 수련원, 비자림 야영장 등)	14	105	8,214

4. 해외 컨벤션시설 및 운영 현황

가. 일 본

1) Pacifico Yokohama

- 21C를 대비하는 최고의 항구 재개발 계획인 『Minato Mirai 21』의 기본계획에 의거 요코하마시의 지명도 향상과 국제교류 촉진 등의 개발목표를 세우고 건설성과 관·민 투자법인체인 (주)요코하마 국제평화회의장이 총 70억엔을 투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립되었다.
- 전체 60,500여평의 부지위에 회의센터 9,075평(대·중·소 회의실 60개), 전시홀 6,957평, 5,000명 동시 수용규모의 국립대회장 4,840평, 600실 규모의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운영은 전시장과 회의장은 요코하마시, 神奈川縣, 일본개발은행과 259개 민간기업이 출자한 (주)요코하마 국제평화회의장이 담당하고, 국립대회장은 대장성이 요코하마시에 관리를 위탁하고, 市가 다시 (주)요코하마 국제평화 회의장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관리운영비는 요코하마시와 神奈川縣 의 자본 참여금과 요코하마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그간의 경영실적을 보면 회의장, 국립대회장 부분은 적자이지만, 호텔의 임대료 전시홀이 흑자를 기록하여 적자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총수입은 61억3,531만7천엔, 총지출은 64억 9,123만7천엔으로 적자를 기록하였고, 시설이용객수는 회의 57만7천명, 전시회 127만6천명이었으며, 시설가동율은 회의장과 전시장이 각각 50%, 55%로 추계 되었다.

2) Miyazaki World Convention Center Summit

- 최대홀인 5,000명 수용규모의 Summit Hall이 있으며, 인근에 753실 규모의 Hotel Ocean45를 비롯, 30여개의 숙박시설이 있다.
- 9개국어 동시 통역시스템을 갖춘 리조트형 컨벤션시설이다.

나. 싱가포르 SICEC (싱가포르 회의·전시센터)

- 홍콩자본을 가지고 『Suntec City Project』라는 거대 신도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2억 달러를 들여 '95년 3월 개장하였다.
- 전체 36,300평의 부지위에 최대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206평 크기의 컨벤션홀을 비롯, 4분할이 가능한 3,630평 크기의 전시홀, 대·소 회의실 26실, 624석의 대강당, 2,150명 수용규모의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다.

- 좌석전체가 아코디언식으로 접혔다 펴졌다하는 가동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컨벤션홀의 경우 기둥이 전혀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컨벤션홀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음과 스피커음간 차이 발생을 예상, 스피커등 음향시설에 신중을 기하였고 아시아에서 최첨단 동시통역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다.

- 주변에는 싱가포르 유수의 호텔이 6개나 있어 5,000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은 Suntec City Development 주식회사가 맡고 있다. 관리운영비는 운영 수익으로 조달하고 있다.

다. 미 국

1) Jacob k.Javits

- 뉴욕주정부가 소유토지를 내놓고, 뉴욕주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을 담당하여 4억8천 6백만달러를 들여 지난 '86년완공하였다.
- 전체 50,517여평의 부지위에 10명에서 5,500명까지 회의규모에 따라 회의실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131개의 회의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도 12,100평, 6,655평, 1,210평 규모의 대형전시장 3개소를 갖추고 있다.
- 관리운영은 뉴욕 컨벤션센터 운영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적자분에 대해서는 뉴욕주의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 '96년도에 76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한바 있다.

2)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 라스베가스시에서 건립을 담당한 12,000명 수용규모의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는 27,0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비롯, 89개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다.
- 전시장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면적으로는 미국 최대규모이다. 관광도시인 라스베가스시의 이미지와 함께 저렴한 임대료로 활발한 컨벤션 산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운영은 Las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가 담당하고 있으며, '95년 기준 운영예산은 84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라. 독일 ICC

- 동·서독 분단시 동독내에 고립되어 있는 서베를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독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였다.
- 건립주체는 베를린 주정부이지만 건설 비용은 연방정부의 주선으로 헛센, 라인란트, 바덴, 바이에른 등 10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각출하여 조달하였다.

- 전체 30,250평의 부지위에 20~5,000명 수용규모의 홀 및 회의실이 80개나 있으며, 홀2의 경우 1,472석의 좌석 전체가 천장까지 들여올려져 4,000명 규모의 연회장이나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강당은 12,000석 규모이며, 이밖에 6~8개국 언어 동시통역시설, 전자정보통신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 운영은 주정부가 설립한 법인체인 Messe Berlin이 맡고 있다.

5. 컨벤션 수요전망

【 세 계 】

- 세계의 컨벤션 산업은 계속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각종 분석기법을 토대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9천~1만여건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계획 목표년도인 2010년에는 최저 13천여건에서 최고 22천여건까지 급신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위: 건수

구 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6년	2010년
Linear D.	9,144	9,829	10,513	12,567	13,935
Exponential D.	10,081	10,784	11,488	13,597	15,004
Exponential R.	10,721	13,194	13,194	18,013	22,169
Modified Exp.	9,124	9,760	10,387	12,208	13,375

【 국 내 】

-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획목표년도까지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기타 행사 등 컨벤션 관련 총수요에 대한 각 기법별 예측결과를 보면, 계획목표년도인 2010년에 최소 565건에서 최대 1,350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각각의 예측결과를 비교하면 2차 추세분석기법의 예측결과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목표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될 컨벤션 관련 총수요는 1,350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중 회의·전시 등으로 온 외국인 관광객은 299

만명으로 전체관광객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컨벤션 관련 수요예측 결과

단위: 건수

분 석 방 법		1996년	1998년	2000년	2006년	2010년
Brown 지수평활법	Linear	363	419	474	698	753
	Quadratic	370	450	545	1,073	1,242
추세분석법	Linear	312	334	356	444	466
	Quadratic	371	456	560	1,156	1,350
	Exp. power	312	340	370	519	565
Holt 지수평활법		365	423	482	755	775

【 제주도 】

- 금년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는 외국인 210천명, 내국인 3,940천명 등 약 410만 명을 웃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중문지역을 찾게 되는 관광객은 약 160만명 (외국인 112천명, 내국인 1,495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러한 관광객수는 2000년에는 전체 내도관광객 5,152천명 (외국인 358천명, 내국인 4,794천명)중 2,136천명 (외국인 149천명, 내국인 1,987천명)이 중문지역 관광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체 내도 관광객 7,554천명 (외국인 692천명 내국인 6,862천명)중 3,777명(외국인 346천명, 내국인 3,431명)이 중문을 찾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회의·전시·행사등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수는 '95년 현재 33,422명(내외국인 포함)으로 이는 내도 관광객 중 약 0.84%에 불과한 실정이다.
- 그러나 우리도는 서울을 제외할 경우 경주와 더불어 가장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타시도에 비해 '90~'95년의 연평균 개최건수 증가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으로 컨벤션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경우 2010년에는 제주도 방문자중 약 10% 내외가 회의·전시·행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 '96년을 기점으로 도방문 관광객중 0.8%가 회의·전시·행사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96~'99년까지 매년 0.1%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기타 회의시설 이용자는 1999년까지 매년 전체방문자 대비 1% 증가하다. 컨벤션 센터가 개장되는 2000~2005년까지는 1999년의 54천명 대비 3%씩 증가, 2006~2008년까지는 2%씩 증가, 2009년~2010년까지는 1%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광객중 회의목적 수요 예측

단위: 천명

구 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제주도 전체	34	47	146.6	232.0	331.6	442.8	567.8	703.2
컨벤션센터	-	-	91.0	173.0	269.0	377.0	498.0	632.0
기존회의시설	34	47	55.6	59.0	62.6	65.8	69.8	71.2

Ⅲ. 제주도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동북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로 건립
- 컨벤션 및 부대사업 운영을 통해 수익성 도모
- 세계적인 건축물로 시설 자체가 관광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형성 추구
-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부여
- 도민 결집의 기념비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채택

2. 컨벤션센터 기본구상

- 우리도가 구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한국 관광 공사 소유 32,740평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6,400평 내외의 총 5,000명 수용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 시설은
 - 베를린 ICC의 "HALL 2"처럼 평상시에는 좌석이 세팅되어 있다가 연회장으로

사용하거나 전시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좌석 전체를 천장으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개념을 도입하여 건축하고

- 메인 회의시설은 최대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2분할 하되 필요시 3분할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주된 회의시설과 별도로 컨벤션 시설 내에 최대 약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공간을 마련 하여 개장초기 및 중기에는 다양한 용도 (예 : 단기과정의 관광연구 기능, 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회의건수가 많아지는 2020년 즈음에는 회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주도라는 리조트의 특성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주회의장과 내부의 회의시설 공간외에 포도송이처럼 외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독립된 회의실을 컨벤션 시설과 별도로 건설하여 고급회의 수요에 대처하고자 한다.
- 또한 호텔은 컨벤션 시설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통일된 시각에서 500실 규모로 설계하고
- 아울렛(Outlet), 노천 카페, 상설 문화공간 등으로 둘러싸인 공간과 컨벤션시설 외벽을 이용하여 야외 무대로 활용하고 밤에는 레이저쇼 등을 상설화하여 제주도 야간관광의 명소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ASEM 및 World Cup을 전후한 각종 국제회의와 UN 산하기관, WTO(세계관광기구), PATA, ASTA총회, 관광박람회 등을 적극 유치 하고, 국내를 비롯 일본, 동남아등을 대상으로 골프, 콘도형태의 교육, 연수, 세미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쇼핑센터 및 면세점, 대형 카지노 등을 병행 운영 하며 단기과정의 호텔(관광) 연수원(가칭 "호텔학교")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내 호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회의, 이벤트, 스포츠 행사 등 다목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가 주관하여 출자하고 있는 환도서 관광망 포럼사무국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3. 수익성분석

【 제 1 안 】

— 호텔 불포함시(컨벤션 시설과 부대시설만 건설하고 호텔은 다른 운영주체가 건설)

○ 실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수익성은 변화될 수 있으나 컨벤션센터, 면세점, 카지노, 영상돔 운영 등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순현재가치(NPV)로 2억원의 수익이 전망되고 있다.

-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세계적인 호텔 체인망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억원

구 분	현금유입	현금유출
사 업 비		1,585
영 업 활 동		
- 컨벤션센터	3,475	2,657
- 면세점	24,442	21,784
- 카지노	1,224	-
- 영상동	5,041	3,327
- 아울렛	415	-
- 제주 show	4,419	3,875
- 노천카페	354	-
- 기타	166	199
- 판매관리비	-	656
- 법인세	-	1,647
계	39,536	34,146
현재가치	10,098 (A)	10,096 (B)
순현재가치(NPV) (A) - (B)		2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용역보고서〉

【 제 2 안 】

— 호텔 포함시(컨벤션시설, 부대시설과 호텔을 포함)

○ 호텔을 포함할 경우에는 NPV가 30억원으로 나타나 투자수익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초기자본금 1,200억원을 제외한 2,244억원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있다.

단위: 억원

구 분	현금유입	현금유출
사 업 비		2,882
영업활동		
- 컨벤션센터	3,475	2,657
- 호텔	13,194	8,962
- 면세점	24,442	21,784
- 카지노	1,224	-
- 영상등	5,041	3,327
- 아울렛	415	-
- 제주 show	4,419	3,875
- 노천카페	354	-
- 기타	166	199
- 판매관리비	-	883
- 법인세	-	2,188
계	52,730	43,875
현재가치	14,270 (A)	14,240 (B)
순현재가치(NPV) (A) - (B)		30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용역보고서〉

IV. 장기 발전 전략 과제

1. 관광관련 시설의 확충 및 고급화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이 수용태세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컨벤션센터가 리조트형이고 세계 컨벤션 추세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숙박·위락시설을 포함한 관광관련 시설의 확충과 그 내용의 고품위화(고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2. 컨벤션 전문조직의 구성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복합적으로 긴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유기적인 통합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건립·운영 특성상 많은 경험과 지식,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에게서 그러한 경험이 일천한 상태다.

전문조직은 공무원·민간·분야별 전문가등으로 구성하고, 컨벤션 건립과 운영상 예상되는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관련정보와 지식, 경험 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조직은 컨벤션인력 육성, 컨벤션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케팅전략 수립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활동내용을 가져야 한다.

3. 인재육성

최근 들어 컨벤션은 이벤트와 서비스적 경향을 강하게 띠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육성이 시급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외전문가 초빙강연,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4. 장기 마케팅전략의 수립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컨벤션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컨벤션 주최일정과 내용 및 특성, 세계 각국의 컨벤션 주요시설에 대한 재원과 특징 등 포괄적인 자료축적을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과 컨벤션동향 파악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컨벤션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컨벤션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파악된 수요와 컨벤션동향 등을 우리의 상황에서 재해석해 내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적 홍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5.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대학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V. 제주컨벤션 건립과 국제회의 산업의 활성화

1. 도민주에 의한 컨벤션센터의 건립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수익이 확실할 경우 관광산업의 Infra인 점을 감안 외부기업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건립운영 하므로써 도민들이 컨벤션산업의 주체로 서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21세기 제주발전의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대규모 시설들이 외부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경우 운영주체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컨벤션센터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자본을 투자하고 운영에 까지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도민참여와 주체개발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민의 자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별써부터 논리적 비약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이익배당의 가능성은 도민주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고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이익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실현시키는 시범적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2. 국제회의 산업 유치를 통한 관광발전

컨벤션은 이미 지역에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것으로 선진각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을 고부가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관광단지·지구개발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휴양시설을 갖추고 직항로의 개설, 면세지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 바탕에 컨벤션 산업을 도민들의 주도하에 이룩하므로써 21세기 제주지역의 관광발전은 우리 손으로 주도해 나갈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VI. 국제회의산업이 제주발전에 미치는 영향

1. 제주 이미지 측면

컨벤션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과정에서 이미 기존과 다른 적극적 개념의 홍보전략이 구사된다. 여기에다 컨벤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국가나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수행취재를 통해 제주에 대해 빠르고 광범위한 소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미지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컨벤션 개최에 따른 국제적 교류의 확대로 제주의 국제적 지위 제고와 도민의 의식도 세계화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측면

컨벤션 유치를 통해 외화획득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컨벤션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Convention Liaison Council 보고서는 지난 94년도에 경우 미국에서 개최된 컨벤션에서 참가자들은 828억달러 (약 67조원)을 소비했고 이로 인해 15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23억달러 (10조원)의 세수효과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중 컨벤션 및 전시박람회에 522.7억달러(63.1%), 회의부문에 270.4억달러(32.7%), 인센티브 관광부문에 35.1억달러(4.2%)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호텔부문에 238억달러 지출로 같은 기간 호텔업계 총매출액 660억달러중 36.1%를 차지했으며 항공부문에는 193억달러를 지불함으로써 항공업계 총매출액 876억달러중 22.1%를 차지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정보및 지식의 교환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수준으로의 대폭적인 사회 간접시설(SOC) 확충도 이루어 질 것이다.

3. 관광측면

컨벤션 개최를 전후해 직접적인 마케팅과 언론의 취재활동, 컨벤션 참가자들의 구두 등에 의한 관광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항공·항만·위락·쇼핑 등 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며 외래 관광객 유치의 지역적 편재, 관광상품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면서 비수기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호텔등 객실의 판매증대와 숙박시설의 공급과잉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컨벤션센터 개발의 효과의 구체적 사례

- 교통개발연구원 최승담 · 한정현 · 김상태, '94년 발표 논문 -

- 샌프란시스코는 Moscone Convention Center를 '81년 개장한 후 3,700명의 고용 창출, 컨벤션참가자 소비액은 연간 2,700만\$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체적으로 2억 3천 4백만\$로 추계함
- 미국 뉴올리언즈 1986년 통계의 의하면 컨벤션개최 의한 연간 수입은 3억6천만\$ 이었고, 고용창출 효과는 49,300종에 75,700명임
- 뉴욕은 1986년 Jacob K. Javits New York Convention Center (5,500명 규모, 회의실 131개)가 건립된 이후 33,000명 고용창출, 87년에는 45,000명, 88년에는 55,000명 등으로 증가함. 87년 기준으로 컨벤션에 따른 뉴욕시 세수입은 1억 120만\$로 추정됨.
-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ASPAC '89의 경우 총 16,514명이 참석해 27억3천만 엔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89년 요코하마시 년관광수입의 2.5%에 상당함